

서민의 든든한 한끼 '천원밥상' 지켜낸다

코로나에 경영난 대인시장 '해뜨는 식당' 각계 후원 이어져

광주시·동구 애로 청취 지원 모색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쌀 100포 전달
시장 상인회 50만원 식자재 지원



'해뜨는 식당'은 지난 2010년부터 밥과 3찬, 국으로 구성된 식사를 1000원에 판매해 독거노인, 일용직 노동자 등 소외 이웃의 지킴이 역할을 했다. 2015년부터는 암 투병 끝에 작고한 고(故) 김선자 씨의 유지를 이어 딸인 김윤경 씨가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과 단체, 기업 후원 등으로 운영을 이어 갔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이 겹쳐 후원이

줄어들면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을 보살피는 평범한 시민들의 선한 영향력이 얼어붙은 공동체를 녹여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선한 가치와 움직임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촘촘한 민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강진라이온스클럽, 병영 백양마을 '사랑의 집' 준공



사회봉사단체 강진라이온스클럽(회장 윤성준)이 최근 강진 병영면 백양마을에서 '사랑의 집' 준공식을 진행했다. 강진군 '사랑의 집짓기' 30호 주택이자 강진라이온스클럽 1호 '사랑의 집'이다. 이번 사랑의 집은 강진라이온스클럽,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인 허지은씨 등 주택건축 매칭그랜트사업이 힘을 합친 성과다. 강진군도 지난 2007년부터 이어 온 민관공동협력 '사랑의 집짓기' 사업과 연계해 도움을 줬다. 사랑의 집 1호점이 세워지기 전, 이곳에서는 대인기피증과 장애를 가진 두 형제가

생활하고 있었다. 형제의 부모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으며, 노후되고 균열이 심한데다 곰팡이가 많이 스는 집에서 거주하느라 피부병도 앓고 있었다. 강진군과 병영면은 8차레 사례관리를 거치고 강진라이온스 임원진과 회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협력을 받아 형제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사랑의 집 대상자 A씨는 "강진군청과 병영면사무소, 강진라이온스 회원 등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소중한 집을 선물 받아 앞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강진·남해북 기자 chou@

전남대, 자랑스러운 경영대인 3인 선정

양현봉 산업연구위원·송상락 도 행정부지사·허영호 미림산업개발 대표

양현봉 산업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과 송상락 전남대 행정부지사, 허영호 미림산업개발 대표가 전남대학교의 자랑스러운 경영대인에 선정됐다. 전남대 경영대학동창회(회장 박현택·영무토건 대표)는 18일 광주문화공원 김빛과에서 '제51회 전경포럼 및 자랑스러운 경영대인상 시상식'을 열고 이들을 표창한다. 양현봉 연구원은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중소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연구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송상락 부지사 또한 경제학과 출신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지역의 방역행정 책임자로서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률을 기록하는데 일조했다. 경영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허영호 대표는 전남사회복



양현봉 씨 송상락 씨 허영호 씨

지공동모금회 고객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고 노인, 아동,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소외이웃의 복지 증진에 힘써 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은행 청결문화 확산 표창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사진)은 지난 15일 임택 광주 동구청장으로부터 '쓰레기 없는 동구 만들기' 청결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광주은행은 동구와 '1기관·단체 1청결구역' 업무협약을 맺고, 대인동 본점 포함 13개 지점 청결구역을 지정해 관리해왔다. '1기관·단체 1청결구역' 환경봉사활동 단체식을 시작으로 매달 하루를 '봉사데이'로 정해 환경봉사활동을 벌였다. 광주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체계'에 돌입한 뒤 광주시와 '탈석탄 그린뉴딜 협약'을 맺고, 광주전 릴레이 봉사, 지역사회봉사단 활동,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등을 실천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진도 111가구에 한돈·달걀 나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 다섯번째)와 (사)나눔축산운동본부, 해남진도축협(조합장 한중회), 농협 진도군지부(지부장 강희식)는 지난 16일 진도군 111가구를 위한 축산물(한돈 222kg·달걀 6660알)을 전달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개미의 꿈 스페셜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특선 다큐(재)	00 안녕? 나야!(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2 50 보보보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펜트하우스 2(재)
[1]	00 UHD 특선 다큐 먼지사회(재) 50 한국의 인류유산(재) 55 UHD 슬터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새시장 보급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국회의원 오세훈>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3]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시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분 좋은 날(재)	00 박미선과 돈우리 돈해피(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스페셜	00 마카엔로니 15 캐치 티니핑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특선다큐 생명의 신비, 지구(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UHD 환경스페셜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안녕? 나야!	20 개미의 꿈	00 맛남의 광장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수미산장	30 광주MBC 다큐플러스 친애하는 나의 도시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55 제시의 쇼터뷰
[12]	10 이슈 픽 쌤과 함께(재)	15 통합뉴스룸 ET(재) 45 사랑의 가족(재)		25 나이트라인 55 닥터 365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형사가제트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 딱지
07:00 띠띠뽀 띠띠뽀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15 로보가 폴리	12:25 지식채널e	19:00 볼트론: 전설의 수호자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30 클래스 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3:00 명의	19:45 다크 잇!
08:00 당동당 유치원	13:55 EBS 스페이스 공감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튀든지 유적박스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판타스틱 유력
09:00 꼬미와 베베	15:45 레인보우 루비	-꿈틀대는 생명의 땅, 아이슬란드>
09:15 토끼비 가족	16:00 방귀대장 뽀뽀이(재)	21:30 한국기행
09:30 물랑	16: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 4부
09:40 우리집 유치원	16:30 당동당 유치원(재)	내 남편의 판타지>
10:30 한국기행(재)	16:50 해요와 해요	21:50 파란만장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8일(음 2월 6일 乙丑) ☎ 010-9790-8237

<p>36년생 상관 될 일이 아니니 패념치 말고 처리하라. 48년생 간신히 기만 위에서만 융성하게 될 것이다. 60년생 미처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 발생하여 시간을 빼앗긴다. 72년생 지체 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84년생 표방하는 바와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96년생 인간관계에 불협화음이 들리니 처세를 잘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7, 64</p>	<p>42년생 관직의 차원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54년생 확실한 의사 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66년생 과잉 확신은 엄청난 오류를 날리게 충분하다. 78년생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급변 하리라. 90년생 뜻밖의 충고를 받고 고민할 수 있다. 02년생 액연 그대로라면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7, 76</p>
<p>37년생 일정한 기준과 체계 하에서 처리하라. 49년생 핵심 보다는 부수적인 곳에 문제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61년생 누에게도 말 못할 근심이 보인다. 73년생 의문의 실재를 파악하게 되는 기쁨이 있다. 85년생 조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면역하기 힘들 것이다. 97년생 실행하지 못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4, 51</p>	<p>43년생 상조간에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55년생 본 궤도를 벗어날 여지가 없다. 67년생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안게 된다. 79년생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91년생 마음먹은 바 이외적으로 행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03년생 여태까지 내버려두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3, 50</p>
<p>38년생 재물이 들어오는 호기가 있느니라. 50년생 기쁨이 가치를 드높일 것이다. 62년생 적응하고 보자. 74년생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소신껏 행해도 된다. 86년생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행한다면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98년생 원점으로 회귀하는 형세라고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3, 66</p>	<p>32년생 점점 줄어들어서 상당히 부족하니 속히 보완토록 하자. 44년생 아울러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56년생 불균형이 보이니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잡자. 68년생 서로 관련된 수밖에 없다. 80년생 진퇴양난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인다. 92년생 되풀이 한다고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2, 74</p>
<p>39년생 습관을 잘 들여놔야 당황하지 않는다. 51년생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여져야 대처가 가능하다. 63년생 마무리를 잘못하면 헛수고만 할 뿐이다. 75년생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생기면서 바빠질 것이다. 87년생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으로 승부를 걸자. 99년생 성심으로써 물리칠 수 없는 곤란은 거의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23, 72</p>	<p>33년생 조연을 구한 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 45년생 목적이 부합 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57년생 저변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69년생 투명성을 확보하자. 81년생 천신만고 끝에 난공불락이 점령하는 이치다. 93년생 예의 주시하라. 행운의 숫자 : 36, 54</p>
<p>40년생 고뇌는 삶을 승화시키기에 충분하다. 52년생 파헤치는 것보다는 조용히 덮어 두는 것이 옳다. 64년생 영육의 부침이 심하여 그 과정, 또한 굉장하다. 76년생 원칙을 따라라. 88년생 모르고 지냈으면 더 나았을 법한 비밀을 우연히 듣게 된다. 00년생 강하고 잦을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임하라. 행운의 숫자 : 12, 75</p>	<p>34년생 생산적인 관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6년생 머뭇거리다가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58년생 마음을 빼앗긴다면 빠져 나오기 힘들다. 70년생 구태의 연한 과정을 해소할 대안이 절실하다. 82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원만 했던 상대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94년생 뻔히 알면 서도 빠져드는 안타까움이 있도다. 행운의 숫자 : 40, 86</p>
<p>41년생 실용적인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때가 있다. 53년생 생 다른 곳 쳐다보지 말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 65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77년생 분명 한 의사 표시를 해두는 것이 실용적이다. 89년생 점점 쌓이고 깊어지면서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01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다. 행운의 숫자 : 01, 67</p>	<p>35년생 정래의 정명을 밝게 할 것임은 분명하다. 47년생 구체적이지 않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59년생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수확할 채비를 하라. 71년생 비웃을 때 비로소 채울 수 있는 법이다. 83년생 강력한 추진력이 요청되는 때이니라. 95년생 성과물이 모든 것을 대변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4, 65</p>